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립요인 탐색에 대한 현장연구

한 복 남 / 김 혜 진 / 이 선 영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개인의 인생 중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어 지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도, 열등감, 무의지, 무능력 속에서 온전한 발달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온전한 발달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직업으로 이어져 빈곤의 세대전승을 낳는 결과를 낳는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준비의 필요성은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중 청소년(12세에서 19세)은 24만 4천명 가량으로 총 인구수의 4.4%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국가의 공적부조체계가 실제로 모든 빈곤가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김희성, 200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부방,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일하는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진로 및 자립준비에 있어 개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서비스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3년 동안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청소년기 자립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립을 촉진시키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청소년기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에 신청한 30명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소 2년에서 3년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 후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들로 심층 면접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추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변화과정을 파악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은 3년 동안 현장에서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실시했던 개별 사례관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참여 활동일지, 클라이언트 수기, 프로그램 감상 및 평가서 등을 모아서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참여자들의 경우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변화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이러한 비 구조화된 면접은 참여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런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폐쇄형질문을 사용하며 현상에 관련하여 추적질문과 면접이 진행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기 위한 대조질문도 사용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참여자 중심으로 맞추어서 진행되었으며 본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민속지적 분석 과정이란 “정보자에 의해 개념화된 문화의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Spradly, 1982).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자립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나타나는지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자료 분석은 3년 동안 창업동아리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과 개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 결과에 대해 재점검하는 과정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코딩(coding), 범주화(categorization)를 포함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Mayan, 2001)에 따라 분석하였다. 코딩이 이루어진 다음 자료의 범주화 과정이 이루

어졌는데, 범주화란 일상생활에서 자료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협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Morse & Richards, 2002).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 기록내용과 분석 결과를 15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활동일지, 수기, 평가서 등의 내용을 모아서 분석하였고 또한 심층 면접이 필요한 경우 심층 면접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범주가 도출되었다. 즉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자립에서 경험하는 것은 <한심한 자신 돌아보기>, <참여적인 창업동아리 교육에서 흥미와 재미느끼기>, <자발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기>,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 사귀기>, <선생님·친구들의 신뢰·지지로 힘 얻기>,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 <성취감과 자신감 갖기>, <대인관계 기술 배우기>, <가족에게 인정받고 화해하기>, <내가 받은 것으로 사회에 보답하기>로 나타났다.

1. 한심한 자신 돌아보기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하고, 친구들과과는 할 일 없이 노래방, 오락실,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냈다고 했다. 이런 생활에 대해 스스로도 지겨움을 느꼈지만, 다른 친구들과처럼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많이 남는데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자신에게 미래란 없을 것 같아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없고 또는 막연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배우는 것을 귀찮게 여겨 그러한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

2. 참여적인 창업동아리 교육에서 흥미와 재미느끼기

참여자들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강

서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실시하는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 창업동아리에 참여 할 때는 막연한 동기와 학교 선생님의 권유, 친구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창업동아리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게 되고, 처음으로 자격증을 따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재미가 없었는데 창업동아리 교육은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말하면서 기술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게 되어서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3. 자발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기

참여자들은 창업동아리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따른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고, 또 재미있게 하다보니 실력도 늘고 소질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때를 후회하고 열심히 해보기로 하여 스스로 수업에 참여를 잘 하고 즐기 않으려고 태도를 바꿔갔다고 했다. 또는 막연하게 생각만 해 오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써 학교 성적이 오르거나 원하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4.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을 통해 대학의 관련학과 진학을 결심하고 그에 따른 입시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거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자율적으로 통제해 가면서 시간을 만들어 이를 취업을 위한 공부와 연습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5.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 사귀기

참여자들은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동아리 성원들과 지내면서 또래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창업동아리 활동 이전에는 가족 외에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있더라도 단순히 놀기 위해 몰려다니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리 안에서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고, 서로 믿어주며 비밀 이야기도 가능해지

고, 어려울 땐 서로 돕고,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장난치고 함께 다니기를 즐기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업동아리 교육과 학업에 의욕적이 되면서 이전에 어울리던 노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거나 함께 하는 활동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동아리모임이나 캠프 등을 통해 친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 이성과도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마음에 맞지 않는 누구와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써 내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6. 동아리 선생님·친구들의 신뢰·지지로 힘 얻기

참여자들은 동아리 사회복지사와 교육 자원봉사 선생님의 지지, 동아리 소속감이 진로 준비 노력을 지속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와 교육 선생님이 자신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잘 되기를 기대해 주고,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챙겨 주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결같이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믿고 자신이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도와준 선생님에게 감동받고 힘을 얻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했고 모든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가족과 같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7.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

참여자들은 때때로 창업동아리에서 요구되는 활동이 힘들고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끝까지 하면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전과 같으면 “하기 싫어, 못해” 하며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해 보겠다’ 고 이야기하고, 끈기를 갖고 해서 끝까지 해내곤 했다고 이야기했다.

8. 성취감과 자신감 갖기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창업동아리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남과 다른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해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참여자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고, 설사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을 하더라도 거짓말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있어도 두렵지 않고, 자

신을 좋다고 하고 칭찬할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9. 대인관계 기술 배우기

참여자들은 창업동아리 활동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리 캠프나 박람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창업동아리의 여러 성원들과 함께 월례회의를 하다보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했다.

10. 가족에게 인정받고 화해하기

참여자들은 창업동아리 활동 이전에 부모님의 불신, 잦은 다툼과 같은 가족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창업동아리 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가 하는 일이라면 집안일부터 불신하는 아버지, 항상 자신을 무시해 온 형제로부터 동아리 활동을 한 이후로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이랑 쓸데없이 놀러 다니는 것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믿어주시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또한 부모님을 전보다 이해하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창업동아리에서 지닌 기술을 사용해 발맞사지를 해드리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11. 내가 받은 것으로 사회에 보답하기

창업동아리 교육 참여 초기에는 무료로 기술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서 참석하였으나 점차로 자원봉사로 매주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이와 같이 선생님과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수혜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에 자신들이 배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작한 양로원 자원봉사 활동과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보람과 뿌듯해지는 마음을 느꼈고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책임감도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청소년기 자립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경험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립을 촉진시키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소년기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입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민속지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focused ethnography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특정 소집단 내에 있으면서 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집중하여 집단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2-3년 동안 본 기관에서 창업동아리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한 고등학생 15명 이었다. 자료 수집은 3년 동안 현장에서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실시했던 개별 사례관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참여 활동일지, 클라이언트 수기, 프로그램 감상 및 평가서 등을 모아서 1차적으로 분석하였고, 심층면접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비 구조화된 면담에 의해 2005년 2월부터 8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나타난 요인으로는 <한심한 자신 돌아보기>, <참여적인 창업동아리 교육에서 흥미와 재미느끼기>, <자발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기>,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 사귀기>, <선생님·친구들의 신뢰·지지로 힘 얻기>,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 <성취감과 자신감 갖기>, <대인관계 기술 배우기>, <가족에게 인정받고 화해하기>, <내가 받은 것으로 사회에 보답하기>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통합적 서비스가 저소득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비관적인 미래인식을 바꾸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학업향상과 기술력 증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구체적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자신들이 배운 기술을 후배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 환원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기관에서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자립과정을 이해하는데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청소년기 문화에 맞는 자립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희성(2002). 빈곤가족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2003). 저소득 청소년의 구조적 빈곤완화를 위한 지역사회단체 활동.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세미나 자료집.
- 김희정(2003).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동덕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명희(2004). 빈곤가족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 혁(1997).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기반조성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1993).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 취업경험이 청소년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 14권
- 박영란, 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복지학.
- 이미라(2005).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지지체계가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복남(2004). 수급권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범(2001). 고교생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은(2005). 캐나다 이민 한국 노인의 건강행위. 한국질적연구센터
- Mayan, M.(2001).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methods: A training module for students and professionals. Edmonton, AB: Institu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
- Morse, J. M, & Richards, M. L.(2002).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Spradly, J. (1982). The ethnographic in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